

# 광주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 환경부 32개 항목 하수도사업 평가 광역 자치단체 유일 2년 연속 선정 하수처리 시설 개선·안전대응 호평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를 가장 잘하는 우수 자치단체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최근 환경부 주관 '2022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161개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분야, 하수도 정책분야 등 32개 항목의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 능력, 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노후관로 개선율, 하수찌꺼기 자원화율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관리·준수하고 있으며, 여름철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총인처리 강화 운영, 노후 시설물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공공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 상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총질소 20→10mg/L)에 따라 2027년까지 1500억원을 투

입해 제1하수처리장(서구 치평동)에 생물반응조 등 주요 시설을 확충하는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하수의 오염부하량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영산강 상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수찌꺼기 감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한 소화조 개선 등 제2하수처리장(광산구 본덕동)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신 광주시 수질개선과장은 "이번 공공하수도 분야의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하수도사업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공공하수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주민서비스 개선을 통해 하수도 부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제설작업 3개반 편성 제설자재 1409t 확보 광주시 폭설 대비 사전준비 만전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겨울 제설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2-2023년 강설대비 사전준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종합건설본부는 2023년 3월15일까지 운영되는 '도로 제설 대책 기간'에 대비하기 위해 3개 반 31명으로 제설작업반을 편성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총 3단계 제설 투입계획을 마련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4개와 제설장비(살포기, 굴삭기, 덤프트럭 등) 26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이상 기온 등 폭설에 대비해 최근 5년 평균 제설자재 사용량의 1.7배에 달하는 제설자재 1409t도 확보했다. 종합건설본부는 특히 올해는 삼승 결빙지역 등 취약 구간 국지도 49호선 승용고 등 15개 구간에 대한 선제적 제설작업 실시를 위해 기동 특별 제설반 3개 반, 15명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블랙아이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이상기온 등에 따른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스 취약구간(교량 하부, 터널)의 경우 결빙 방지 아스팔트 시공을 완료했다. 제설 대책 구간은 무진대로 등 13개 노선 96.42km에 이른다. 김일용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강설예보 때에는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제설 대책 기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강설 시에는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설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전기차 신차 구입 296대 추가 지원

### 올 2회 추경 33억원 확보 지난해 2배 4160대 보급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신차 296대 구입을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차 신차 구입 보조금 33억원을 확보해 296대를 추가 지원한다. 추가 확보한 296대는 승용 164대, 화물 132대이며, 올해 계획 물량도 총 4160대(승용 2684대, 화물 1051대, 버스 10대, 이륜 415대)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보급 지원 물량 2162대보다 92%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 된 시민과 광주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오는 9월까지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승용 기준 최대 1100만원, 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 전기버스 중형 기준 최대 5000만원, 전기이륜 소형 기준 최대 240만원이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전기승용차 차량가격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보조금 추가 지원 사항으로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와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어린이통학버스 구매 시 국비 5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단,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격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주민 숙원 풀자"...기후환경국은 열공 중

### 연구모임 수질개선 등 모델 제시 37년 신안교 악취 민원 해결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광주시 기후환경국 직원들이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 예산절감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4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기후환경국 직원들은 공직자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37년간 지속됐던 북구 신안교 주변 악취 문제 해결(수질개선과)' 방안을 제안해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이들의 제안 덕분에 그동안 검토했던 하수시설 이전 사업(206억원)보다 195억원이나 절감한 11억원만으로 악취 밀폐 구조물과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환경국 내 3개 부서가 전문가와 함께 연구과제를 진행한 '공직자 연구모임'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수상을 이어갔다. 기후환경정책과와 수질개선과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와 함께 '상수 원수를 활용한 건

물 수열에너지 적용' 연구모임을 결성해 '2022년 공직자 연구모임 성과물 심사'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사계절 온도가 일정한 광역상수를 활용해 인근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연료·전기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발생량을 낮추는 사업인데, 광주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한 사업화까지 모색하고 있다. 수질개선과는 광주환경공단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질소(T-N) 저감방안 연구'를 진행해 하수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냈고, 연간 5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커피박 재활용 환·생 스토어 기반 마린 연구모임'을 운영해 커피박 수거·재활용 거점을 조성했다. 퇴비화한 커피박을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량 감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공직자 모임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전국 사회적경제 정책 우수기관 선정

###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상

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4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광주,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 지자체와 서울 성동구, 은평구, 경기 화성시, 사천시, 대전 서구 등 5개 기초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열리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는 정책기반정비, 지원수준, 거버넌스 등 4개 분야 총 17개 지표를 정량, 정성평가 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광주시가 수상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한 지방정부에 주는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구축·운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모사업 선정 ▲제1회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매칭데이 운영 ▲사회적경제 전문인재 양성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



계 구축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에선 지난 9월 말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238개, 협동조합 1073개, 마을기업 67개, 자활기업 36개 등 141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있다. 최대범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생·협력·연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가치 실현, 광주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